

그분을 그리며

내 기억 속 안병희 선생님

서정목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선생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 왔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공부에 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 또 다른 성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관악의 학과장이신 선생님을 조교로서, 그리고 초대 국립국어연구원장이신 선생님을 어문실태연구부장으로 모시면서 입은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사람 삶의 기본에 관한 엄격함, 대쪽 같은 올곧은 일 처리, 불같이 노하셨다가도 뒤끝 없이 깨끗하게 화를 삭이시는 인품, 후배나 제자들의 어려운 일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던 자애로움 등으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어떤 경외의 경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경지를 본받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것이 지난 40여 년의 제 공적 생활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만,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1991년 그동안 임의 단체로 있던 국어연구소를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국가 기관화하였습니다. 국어연구소장이셨던 안병희 선생님은 당시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선생님과 함께 이 국가 기관 출

범의 산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때 막 수교가 이루어져 본 모습을 드러낸 구소련, 그리고 중국, 북한 등 동포들의 우리 말 사용 실태를 조감하면서 언어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임흥빈 선생님이 어문규범연구부장을 맡으시고, 저는 어문실태연구부장으로 일하였습니다.

1992년 여름 방학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 동포의 우리말 사용과 한글 학교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장을 다녀오시는 중이었습니다. 임 선생님과 저는 함께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뵙는 순간 이상하게도 2주일 정도 사이에 갑자기 많이 변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요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가족과 댁으로 향하신 후에 임 선생님은 저를 보고 “아! 큰 일났다. 선생님이 편찮으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낌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며칠 후 아무 일 없는 듯이 출근하셔서 집무하셨습니다.

그해 말 임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셨고, 저는 2년 더 일을 한 후 1994년 10월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빨리 학교에 복귀하셔야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후임 원장 선임과 잔여 업무 정리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임 선생님과 저는 마음속에 돌덩어리 같은 것이 짓누르고 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각각 국어연구원 근무를 마감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병환을 저희들은 일찍 눈치채었지만,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마도 아셨겠지만, 선생님은 밖으로는 알리지 않으시고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제가 서강대학교에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서강대에 출강하고 계셨습니다. 관악의 여러 중책들이 무거워질 무렵부터 서강대 출강을 그치시고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던 과목들을 제가 맡아야 했습니

다. 선생님께서 정년을 맞이하시고 어느 학교 대학원 과목을 맡으셨다고 하시기에 저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중세 국어 문법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각각 서너 명씩이었던 수강생을 서강의 강의실에 모아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강의를 볼 수 있었던 마지막 학기, 가끔 강의 끝날 시간에 배웅 가서 맡게 되었던 그 진한 약 냄새는 아직도 코에 남은 듯하고, 그 냄새에서 받았던 가슴 저림과 애끊는 듯한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학기 후에 저희는 입원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문실태연구부는 국어 순화라는 이름의 각종 생활 언어 다듬기, 해외 동포 한국어 보급, 북한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기간 임흥빈(1대), 박양규(2대) 선생님이 맡으셨던 어문규범연구부는 어문 규범 재정비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언어 예절, 해외 동포 한국어 사용 실태 연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준비 등의 일을 익힌 것이 그 후 제 연구 활동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갓 출범한 국어연구원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인 일은 ‘화법(언어 예절) 표준화’였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이 협의하여 추진한 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의 표준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말 배우기부터 쓰는 말인 가족, 친·인척 간의 호칭어, 지칭어, 경조사 때의 인사말, 가정이나 사회, 각종 기관 내의 경어법 등에 대하여 기준이 될 만한 표준어형을 정하였습니다.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혹시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여론 주도층을 형성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가족끼리의 호칭, 지칭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남편을 ‘아빠’, ‘오빠’ 심지어

‘형’으로 부르고, 시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시누이의 남편’을 ‘고모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논어》의 정명론에 비추어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워야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을 알 수 있다는 이 정명론을 ‘언어 예절 표준화’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호칭, 지칭어가 혼란스러우면 말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논지를 펴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조선일보》 지면을 통하여 논의 주제를 제시하여 1주일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회의 자료로 만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회의 결과를 정리해 신문에 실는 일이 2주일을 한 단위로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연령층도 폭넓게, 출신 지역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 비교적 올바르게 많이 쓰이는 말을 표준어형으로 정하였습니다. ‘처남의 맥’, ‘시누이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에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위원회의 논의 끝에 ‘처남의 맥’은 형이나 아우의 부인을 부르듯이 ‘아주머니’로 부르고, ‘시누이 남편’은 남편의 형을 부르듯이 ‘아주버님’으로 부르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회의 자료와 신문 기사의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눈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1992년에 책으로 출판할 때에는 최종 교정을 직접 보셨습니다.

2011년에 표준 화법 제정 20년이 되어 다시 검토하고 손질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20년 동안의 사용 추이를 보니 거의 그때 정한 말들로 표준어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한 언어정화 운동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선생님의 시종일관한 실행력이 이룬 성과입니다. 20여 분에 가까운 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실 때의 선생님의 신중함과 사려 깊은 논의들은 가히 토의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연구원이 당면했던 문제 가운데 다른 하나는 국어 순화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남아 있는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대치할 수 있는 정확한 우리말을 제시하여 각 분야에서 올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연구원이 권위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의 비상 도로를 가리키는 ‘갓길’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막 널리 사용되는 단계에 있던 영어의 ‘shoulder’에 대한 일본식 번역어를 우리 한자 발음대로 읽은 말을 제치고, ‘갓길’이 자리를 잡는데에는 선생님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어심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후에 정부 공식 용어로 전 부서가 통일되게 ‘갓길’을 사용하니 곧 ‘노견’, ‘길어깨’ 같은 말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한때 ‘한가람’, ‘상록수’, ‘달빛’, ‘은빛’, ‘별빛’으로 지어진 것이 그때입니다. 일반적으로 ‘00동 00아파트’ 하여 회사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회사명 안 된다, 어려운 한자 안 된다, 외국어 안 된다.’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잘 진행되다가, 지금은 이 원칙은 지키지만 이상하게도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데시앙’ 등으로 하여, 국적 불명의 말들과 뜻도 짐작할 수 없는 이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갑상샘’은 ‘의학용어 순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갑상선’으로 쓰던 것입니다. 이 ‘선(腺)’ 자가 문제인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로 ‘뿔(肉)에 있는 샘(泉)’이라는 뜻이어서 ‘샘’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구원의 공식 입장도 ‘임파선(淋巴腺)’을 ‘림프샘’으로, ‘한선(汗腺)’을 ‘땀샘’으로 하는 등 다른 ‘00선’을 모두 ‘00샘’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도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선(腺)’으로 하자는 의견도 만만찮게 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설 용어, 법률 용어, 미술 용어 등 각 분야의 어려운 한자

어와 일본어의 흔적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하나하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추진한 일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해외 동포 우리말 보급은 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표준어형을 알려주는 교육 활동입니다. 구소련, 중국의 동포들이 사용하는 말은 옛 함경도 또는 평안도 방언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현대 북한말이 덧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4세대들이 우리말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나 민간단체가 공산권 동포들을 돕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 교수님들과 국어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구소련과 중국의 곳곳에 가서 동포 교사를 대상으로 표준어, 우리 언어 규범, 문법, 우리말의 역사, 언어 예절 등을 가르치고, 또 현지 선생님들을 우리나라로 많이 초청하여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임무를 띠고 중앙아시아에 다녀온 뒤, 그때 수집한 동포들의 이주 과정, 삶의 현실, 언어 사용 실태, 북한과의 관계, 종교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긴 보고서를 쓰고, 그 끝에 가칭 '문화봉사단'을 창설하여 이 지역에 우리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알릴 인문학 전공의 젊은이들을 정부 차원에서 병역 의무를 하는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등과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코이카(KOICA)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외교부와 국정원 등에서 이미 이런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국방부도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대상 지역도 확대하고 전공 분야도 넓혀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류의 삶 향상에 봉사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데에 이 기구가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일도 그때 선생님의 교육부, 문화부, 국방부, 국회 등의 인맥이 아니었으면 더 늦게 추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께서 역점을 두셨던 일 중 하나는 통일에 대비하여 언어 정책상의 제반 문제를 미리 조율해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연변자치주의 어문 규범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북한의 어문 규범을 미리 정리하여 통일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문생활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말 학자들을 만나 간접적으로 저쪽의 사정을 알고, 우리 어문 규범의 문제점을 손질하고 정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소련과 중국, 일본의 한국어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그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사전 편찬 및 한자와 관련된 학술회의 등을 열면서 국내 젊은 학자들과 친분을 쌓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끔씩 언론에 ‘문건(서류)’, ‘수표(서명)’, ‘얼음 보숭이’ 등이 오르면 문화부, 통일부 등에서 무슨 말인지 연구원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도 고위층에서 자주 이런 문의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얼음 보숭이’에 대하여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숭이”는 황해도 방언에서 ‘콩고물’입니다. 그들은 ‘크림’이 가루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 보았으면 ‘얼음 보숭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말다듬기 하는 학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노견’을 ‘길썬’으로 다듬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shoulder’를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 뒤에 ‘얼음 보숭이’는 북한에서 새로 편찬한 국어사전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한어 규범이 우리와 다르고, 외래어가 러시아식 발음으로 되어 있어서 뿔스카(폴란드), 웅그리아(헝가리), 체스코(체코), 슬로벤스코(슬로바키아) 등이 특이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국어심의회 위원장을 맡아 다시 이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어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한 덴마크 왕의 별명이 ‘푸른 이빨’이었다는 데서 온 겁니다. ‘주변 기기 통합 운용 기능’인데 좁은 데서만 통한다고 ‘쌈지 통신’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블루투스’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연구원에서 일하던 그때는 선생님께 보고 드리면 거의 정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에 의논해 볼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어연구원에서 제가 관여한 일은 모두 선생님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방향 제시, 그리고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실행력에 의한 실천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배우는 은혜가, 군대 생활을 제외하고는 내내 선생으로서만 살아온 제게 주어질 기회가 달리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문서와 기안 서류는 조금의 빈틈만 있어도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공금 지출은 합리적 근거 위에 최대한 절약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저희들은 공무의 엄격함, 국고 사용의 엄중함 등을 익혔던 것입니다.

1978년 1학기 동안 관악에서 학과장이신 선생님을 모실 때는 조금도 소홀할 수가 없는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학과 공금의 사용에는 한 푼의 착오도 없이 정확해야 했고, 학생 운동과 관련된 학생 지도에는 엄정하고 세심하게 말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학과 교수회의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열지 않으셨고, 부득이 열어야 하면 일주일 전에 소집하고 회의 자료는 미리 배포해야 했으며 회의는 짧게 끝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학과 운영이나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선생님께서 규장각의 책임을 맡으셔서 학과장으로는 1학기만 모셨지만, 그때 선생님과 이어서 학과장을 맡으신 백영 정병옥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신중하고도 세밀한 학과장 직무 수행 모습은, 그 뒤에 제가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일에 맞닥뜨렸을 때에 늘 선생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 특히 국문학과 선생님들은 항상 예민하게 긴장하여 글을 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게 학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 가르침의 밑바탕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과 운영 방식은 조교직을 거친 여러 선배들이 후에 각 대학으로 진출하여 교수직을 수행하고 학과를 운영하는 데에 거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1968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해에 교양과정부가 설치되어 저희들은 1년을 공릉동 옛 서울대학교 공대 캠퍼스에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국어과 과장 선생님을 맡고 계셨습니다.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을 뿐 그때는 1학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대학원에 입학하고서야 비로소 그 주옥같은 논문을 쓰신 선생님을 뵈고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1968년 선생님의 논문에서 유정 명사에는 ‘-의’를 쓰고, 무정 명사에는 ‘-스’를 쓰며, 존칭 명사에도 ‘-스’를 쓴다는 규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 (1)처럼 동일 인물에게 ‘-스’를 쓰기도 하고 ‘-의’를 쓰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 ㄱ. 王이 耶輸의 ㅍ들 누규리라 ㅎ사(釋詳 六, 9b)

ㄱ'. 目連이 --- 耶輸스 알핀 서니(釋詳 六, 3a)

ㄴ. 太子祇陀의 東山(釋詳 六, 23b)

ㄴ'. 祇陀太子스 東山(釋詳 六, 26b)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스’을 쓴 경우는 화자나 문장에 있는 다른 인물이 그 사람보다 하위자이고, ‘-의’를 쓴 경우는 화자나 문장에 있는 다른 인물이 그 사람보다 상위자였습니다. 즉, 화자가 그 명사가 존칭 명사라고 생각하면 ‘-스’을 쓰고, 자신이나 비교되는 인물보다 낮아서 존칭 명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를 쓰는 것입니다.

(1)로부터 국어 경어법 사용의 기본 원리가 도출됩니다. [+존칭과 [-존칭] 자질의 결정은 화자가 한다. 그 자질이 체언에 고유한 자질이 아닙니다. 국어의 경어법은 화용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거리를 재는 사람의 심리적 문제이지, 문법론의 원리로 세울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가 도출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이 아니었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61년에 ‘-습-’에 대하여 명징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습-’이 ‘주체가 객체보다 하위자일 때, 주체의 객체에 대한 동작이 겸양해야 함’을 나타내는 ‘(주체) 겸양의 형태소’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객체보다 하위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객체보다 하위자여서, 객체를 존칭체언으로 파악해야 비로소 주체가 객체에 겸양하는 표현을 화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용하면, 그 객체가 청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습-’은 바로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으로 기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종결 어미 속의 ‘-습-’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에서 ‘-ㅁ-/-습-’이 있는 형과 없는 형, 그리고 ‘-다’가 ‘-데로’ ‘-까’가 ‘-꺼’로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설명 방법은 (3)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선생님의 논문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ㄱ. 하-ㅁ(-니-, -디-)꺼, 해-니-, -디-)이꺼 • 하-ㅁ(-니-, -디-)까
참고: 햅(-늬니-, -디-)잇가/고(중세)

ㄴ. 하-ㅁ(-니-, -디-)더, 해-니-, -디-)이더 • 하-ㅁ(-니-, -디-)다
참고: 햅(-늬니-, -디-)이다(중세)

(3) 근대국어에서는 ‘-습-’의 주체 겸양 기능은 축소되고 화자 겸양의 기능이 우세해지며, 현대국어에서는 화자 겸양의 기능만 남았다. 방언에 따라 이 ‘-습-’의 화자겸양의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방언이 있어 ‘하니이꺼, 하니이더 형’이 존속하고 있다. 그런 방언은 ‘청자 존대[화자 겸양]의 ‘-이-’를 강하게 유지한다. ‘-더’, ‘-꺼’는 이 청자 존대의 형태소 ‘-이-’ 뒤에서 /ㅏ/가/ㅓ/로 변한 것이다. ‘-습-’의 화자 겸양 기능을 받아들인 방언은 청자 존대의 ‘-이-’를 약하게 유지하고 있다. ‘-습-’의 화자 겸양 기능도 받아들이고 ‘-이-’의 힘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방언이 ‘합니꺼, 합니더’ 형을 가진다.

중세 국어에서 ‘-고’, ‘-뇨’, ‘-료’ 등이 설명 의문문에 사용되고 ‘-가’, ‘-녀’, ‘-려’ 등이 판정 의문문에 사용된다는 선생님의 1965년 논문은 그 당시 국어학계의 가장 모범적인 논문으로 공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서 출발하여, 자료를 방언에서 가져오고, 단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문에서 이 현상이 어떤 실현을 보이는지를, 생성 통사론의 WH-이동을 원용하여 정리한 저의 박사 학위 논문은 공부에서 제가 선생님께 입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정어 ‘아니’를 다룬 1959년의 논문은 기사와 부정문의 통사 구조를 보는 시각을 마련해 주었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 때는 접속 어미 ‘-디위/-디외/디웬가’ ‘-도예’로 적힌 예가 ‘삼강행실도’에 있다고 직접 원전을 보여 주셔서 접속 어미의 반말 어미화 과정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활용 어간에 관한 선생님의 석사 학위 논문(1959)은 훨씬 뒤에 문법 연구사를 쓰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26세 때 쓰신 것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기술 언어학을 이해하고 그 정신에 따라, 소위 불규칙 용언의 중세 국어 모습, 공시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전범을 보인 것으로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여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향가를 가르치면서 <찬기파랑가>의 제4구 ‘沙是八陵 隱汀理也中[몰개 가른 물가에]와 제5구 ‘耆郎矣兒史是史藪耶[기랑의 모습일 시 숲이여]가 순서가 바뀌어 적혀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상으로 ‘모래 가른 물가에’는 잣나무 숲이 있을 수 없고, ‘모래 가른 물가에’는 제6구의 ‘逸鳥川理 磧惡希[일오내 자갈밭에]와 같은 이미지를 가져서 ‘기랑(耆郎)’이 처했던 정치적 곤경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면서, 언젠가 어디선가 선생님께서 《삼국유사》에 오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망매가>의 ‘吾隱去內如辭叱翻나는 가늠 닷 말도’에서 ‘辭’와 ‘叱’이 순서가 바뀌어 적혔다는 것과 함께 <찬기파랑가>의 두구가 순서가 바뀌어 적혔다는 것을 지적하신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이현희 교수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찾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이 교수는 10여 분 후에 “국어사 자료로서의 ‘삼국유사’라는 논문 속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10구체 향가는 4구-4구-2구로 단락이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처격어로 끝난 제4구가 단락이 나누어지는 4구 위치에 와서는 안 되고, 문장이 종결되는 제5구가 4구 위치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전하는 이 노래는 원래 노래로부터 제4구와 제5구가 전도되어 적힌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제 기억 속에는 선생님께로부터 강의 시간에 배우거나, 교실 밖의 한담에서 오갔던 정보들이 쌓여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아쉬움은, 이 논문들의 집필 동기나 아이디어의 획득, 논지 전개 과정상의 미진함이나 남은 문제에 대한 나아간 논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 이 논문들에 관하여 언급하시는 것 자체를 들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거의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1982년쯤 ‘겸양법’에 대하여 재론하신 논문에 대하여 한 번쯤 말씀하신 것이 모두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당신께서 이룩하신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겸허하셨고, 당신의 학설로 강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논문들의 완성도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강의 내용은 다른 분의 논문, 아직 연구되지 않은 주제, 그리고 문법학의 기본이라 할 형태 분석, 중세 국어 자료 이용에서 주의해야 할 까다로운 언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문법 현상에 대하여 맞부딪혀서 새로운 창안을 해야 하는 저희들의 처지에서 그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논문들 속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여 세심하게 읽지 못한 데서 나온 아쉬움이라 할 것입니다.

1991년 여름쯤 국어연구원 일을 하실 때 어느 점심시간에 의문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으)ㄴ다’가 의도법 의문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충분히 논증이 되지 않았고 그 뒤에도 크게 논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WH-현상에만 골몰하여 2인칭 주어 문장에 사용되는 ‘-(으)ㄴ다’의 기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도법 ‘-오/우’가 심악 이송녕 선생님의 오랜 사색의 주제였던 점과 1인칭 주어 호응설과의 논쟁을 생각

하면, 당연히 그것이 선생님의 주 관심사였을 것인데 그 어려운 주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머나먼 중세 국어의 질서인가 봅니다.

제가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어야 하나 하지 못한 것 하나는 양태 선어말 어미들입니다. 특히 '-터'와 '-느-', 그리고 '-(으)니'와 '-(으)리'에 대하여 어떤 방향의 해결책이 있을지 마지막 주제처럼 붙들고 있는데 이는 현몽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문법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1979년의 《고등학교 문법》(보진재) 교과서,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어쩌면 더 오래전인 1967년의 《문법사》를 붙들고 이 글을 쓰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를 되짚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제목 '그분을 그리며'의 '그리워할 분'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이라도 가서 뵈 수 있는, 걸어서 10분 거리인 현석동에 계셨어야 하는 분이신데,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 황망하여 눈앞이 흐려짐을 어쩔 수 없어 하며 삼가 선생님의 명복을 비읍니다.